『제임스 조이스 저널』
제13권 1호(2007년 6월) 43-72

「죽은 자들」이 제기하는 대학문제

김 석

I.

> 둘이 다시 함께 하게 되었을 때 그녀는 대학문제를 얘기했고
> 그래서 가브리엘은 조금 더 마음이 놓일 수 있었다. (*D* 189)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의 「죽은 자들」("The Dead")을 기억하는 독자들에게도 대학문제(the University Question)는 언뜻 낯설게 다가올지 모른다. 작품에서 대학문제가 직접 언급되는 것은 한 번뿐이고, 그것도 위 인용문이 시사해주듯 하나의 논쟁적 이슈로 부각되기 보다는 앞서 불거진 등장인물들 간의 극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기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더블린 사람들』(*Dubliners*)의 마지막 단편, 「죽은 자들」이 제기하는 대학문제에 대해 논하려 한다. 조이스의 글에서 대두되는 쟁점의 대부분이 그렇듯, 「죽은 자들」이 제기하는 대학문제는 아일랜드의 오랜 식민지역사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다. 지배세력 위주의 편의와 안녕을 위해 이식된 영국식 고등교육제도와 이에 맞서 민족주의적 교육체계의 확립을 꿈꿨던 아일랜드 구성원간의 충돌이 그것이다.

하지만 20세기 초 아일랜드라는 예외적 배경이나 텍스트의 우회적 문제제기

방식이 본문에서 대학이라는 화두가 지니는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은 아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그러한 예외성과 문제제기방식이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대학이라는 기관의 존재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새롭게 사유할 것을 촉구하는지도 모른다. 학계와 언론의 많은 논객들이 환기시키듯, 이 순간에도 그 진폭의 강도를 더해가는 세계화의 여파는 근대계몽주의에 기반을 둔 기존의 교육이념은 물론 그 이념이 주창한 인본주의적 이상과 파생개념들마저 수명을 다한 용도폐기물로 전락시켰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또 하나의 예외적이라면 예외적인 현 상황에서 「죽은 자들」이 던지는 일련의 질문은 필시 낯익고 진부한 것들이다. 하지만 극화된 갈등의 전개 속 다음과 같은 질문들은 그 낯익음만큼이나 강력한 구속력을 획득한다. 서구대학의 탄생이 공언하고 제도화한 가르치는 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떠한 보편성을 전제로 하며 또 어떠한 책임을 수반하는가? 본 논문은 「죽은 자들」과 「죽은 자들」이 조이스의 창작 경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비판적으로 재조명함으로써, 이와 같은 대학을 둘러싼 물음에 답해 보고자 한다.

II.

대학문제라는 표현이 낯설게 들릴 많은 이들에게도 그 문제가 대두되는 극중 상황을 기억해내는 것은 어렵지 않을 듯싶다.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주현절(Epiphany) 축일을 즈음한 어느 날 더블린의 어셔즈 아일랜드(Ushers Island)에 위치한 모간(Morkan) 자매 집에서 파티가 열리고, 파티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두 자매의 조카인 가브리엘 콘로이(Gabriel Conroy)는 4인 무도의 첫 파트너로 미스 아이버스(Miss Ivors)를 맞게 된다. 본 논문의 서두를 장식한 인용문에서 "둘"은, 춤의 진행에 따라 다시 한 번 짝을 이룬 미스 아이버스와 가브리엘을 지칭하며, "대학문제"를 화제에 올리는 것 역시 바로 조금 전 "웨스트 브리튼"(West Briton)(*D* 188)이라 쏘아붙여 주인공을 당황케 만든 미스 아이버스다. '웨스트 브리튼'이라는 발언이 지니는 주제적 중요성은 일단 접어두기로 하자. 우리가 대학문제와 직결된 첫 번째 의문과 맞닥뜨리는 지점은 그 다음, 대학문제가 언급되는 시점이다.

왜 대학문제는 가브리엘의 곤두선 신경을 누그러뜨리는 걸까? 앞서 지적한바

대로, 아일랜드의 상황에서 "대학문제"는 웨스트 브리튼 혹은 친영파라는 발언만큼이나 피지배자의 정서를 자극하는 식민지적 담론의 연장이 아닌가? 일상의 모든 대화가 그렇듯, 여기서 우리는 담화의 근간을 이루는 어휘, 어투, 표정과 같은 여러 복합적 요소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러한 일반론 너머 우리가 우선적으로 적시해야 할 점은 파트너 교체를 반복해 다시 짝을 이루게 된 가브리엘과 미스 아이버스의 관계이다. 텍스트는 미스 아이버스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녀는 가브리엘과 같이 대학을 다닌 오랜 친구이자, 현재도 함께 대학에 재직 중인 직장동료이다. 또 바로 그렇게 "평행선"을 유지해온 둘의 직업적 배경이 가브리엘이 선뜻 그녀 앞에서 "거창한 대사를 시도하기 힘든"(*D* 188)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웨스트 브리튼"이라는 그녀의 뜬금없는 발언으로 심화된 주인공의 심적 혼란이 대학문제라는 공적인 화제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바로 안정을 되찾게 되고, 둘의 관계는 무대 위 만남 전 그랬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어떤 암묵적 평행성, 혹은 구도적 균형성, 대칭성을 일시적으로나마 회복한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일시적이라 함은 물론 두 인물 사이의 화해하기 힘든 민족주의에 대한 견해차와 젠더적 간극에 기인한다. 그렇다면 정확히 대학문제의 어떤 측면이 이 예기치 못한—하지만 그 발원에 있어서는 함께 한 세월만큼이나 근원적인—균열을 그렇게 단시에, 효과적으로 봉합해 버리는 것일까?

근 800년에 달하는 오랜 전통이 말해주듯, 서구대학은 13세기 초를 전후한 볼로냐 대학과 파리 대학의 설립 이래 눈부신 성장과 팽창을 거듭해왔다. 지속적인 변모를 자랑하는 대학의 역사는 그러나 동시에 대학의 안과 밖으로 끊이지 않는 논쟁과 논란이 병존해왔다는 사실 또한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죽은 자들」에서 '대학문제'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조이스의 모교인 유니버시티 칼리지 더블린(the University College Dublin, 이하 UCD)도 예외는 아니다. UCD의 모태가 되는 가톨릭 대학(the Catholic University of Ireland)은, 아일랜드 내 가톨릭교도들을 위한 고등교육기관 건립의 절실함을 절감한 폴 컬른(P. Cullen) 추기경과 존 헨리 뉴먼(J. H. Newman)의 주도하에 1854년 독자적인 사립학교로 건립되었다. 아일랜드 내 대학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당시 교육체계는 개신교중심의 트리니티 칼리지(Trinity College, Dublin)와 무종교성을 표방한 퀸즈 칼리지(Queen's College)로 양분되어 있었고, 정작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가톨릭교도들이 갈만한 곳은 전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정부보조금은커녕 학위수여기능마저 허락 받지 못

한 채 출발한 가톨릭 대학은 3년 뒤인 1857년 초대학장 뉴먼의 사직을 기점으로 뚜렷한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하고, 1881년에 통과된 영국법령에 의해 왕립대학 체제(the Royal University system) 산하로 편입되고 나서야 (같은 해 대학명을 UCD로 변경) 비로소 합법적인 학위수여기관으로 그 위치를 인정받게 된다 (Donovan). 작품에서 가브리엘이 왕립대학을 나왔다 할 때, 우리는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즉, 왕립대학은 특정 학교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가브리엘이 졸업한 UCD와 미스 아이버스가 졸업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성 매리 유니버시티 칼리지(St Mary's University College) 혹은 로레토 칼리지(Loreto College)—당시 아일랜드 내 존재했던 두 여자대학교—를 포함, 총괄하는 아일랜드의 대학체제를 뜻하는 것이다.

'대학문제'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된 갈등이다. 비록 뒤늦게 학위수여기능을 부여 받았다 하나, 정부보조금이 허락되지 않은 UCD와 두 개의 여자대학교는 한편으로는 끝없는 재정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민족주의적 교육을 갈망하는 다수 가톨릭계 아일랜드인들과 대면해야 했다. 뿌리 깊은 식민지 상황에서 비롯된 이 갈등은, 일면 아일랜드라는 지역적 특수성에 기반한 지엽적인 문제로 비칠 수도 있다. 1908년 (조이스가 「죽은 자들」을 탈고한 것이 1907년이니 그로부터 일 년 후) 새 법령에 의해 왕립대학체제가 국립대학체제(the National University system)로 개명되고, UCD 역시 정부보조금의 수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자칫 협소해 보일 아일랜드의 '대학문제'는 서구대학의 역사라는 보다 넓은 관점 아래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주제적 비중을 드러낸다.

주지하다시피, 서구대학의 역사에서 구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볼로냐 대학과 파리 대학이다. 12세기경 볼로냐에서 운영되던 대학교가 실은 하나가 아니었던 관계로 엄밀한 의미에서 전자는 대학들이라 (복수화)해야겠지만, 이미 그 기원에서부터 알프스산맥을 경계로, 양분된 모습으로 등장한 서구대학체제는 서로를 갈라놓았던 지리적 거리만큼이나 판이한 두 개의 성격을 띠었다. 볼로냐에 운집한 대학교 무리가 이르네리우스(Irnerius)의 가르침을 기조로 삼은 법학대학들이라면, 당시 유럽의 가장 중앙집중적인 도시에서 출발한 파리 대학은 아벨라르(Abelard)라는 신학자의 지적 유산으로 기억되는 신학대학이었다.

하지만 역사학적으로나 후대에 미친 그 영향력에 있어 보다 특기할만한 사실은

전자가 조직의 성격상 학생조합, 후자는 선생조합으로 출발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분은 종래의 수도원학교, 대성당학교, 그리고 기타 사립학교와 구별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을 정의하는 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훗날(빨라야 14세기말) 대학을 뜻하게 된 'universitas'라는 단어는 본래 '여러, 혹은 모든 학문(universitas facultatum)을 연마하는 곳'을 뜻했던 것이 아니라, 고대 로마법이 규정한 바 콜레기움, 코르푸스, 코뮤니, 소시에타스 (collegium, corpus, communi, societas) 등과 같은 유사 라틴어와 마찬가지로 특정사회집단의 조합을 뜻했기 때문이다("The Origin of Mediaeval Universities" 461). 이는 12-13세기 당시 대학을 지칭하던 보다 일반적이고 적확한 표현, 즉 'studium generale'를 떠올리면 더욱 명확해진다. 학생/선생조합이 모여 학업을 연마하는 장소를 지칭했던 'studium generale'라는 용어에서, 'generale'는 수업의 종류나 성격이 아닌, 학생구성원들의 다양한 출신지를 지칭했기 때문이다(Rashdall 642-45). 대학을 기존의 고등교육기관들로부터 차별화시킨 점이 바로 이러한 국제성, 즉 다양한 지역출신의 학생들을 받아들였는가 하는 여부에 달려있었다는 사실은 일차적으로 「죽은 자들」에서 대두되는 대학문제가 서구역사상 그리 동떨어진 이슈가 아니라는 점을 환기시켜준다.[3] 본래 대학이, 대학이라는 편제가 지역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타지역 출신 학생들의 신분과 권리의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이자 공간이었다면, 역으로 아일랜드의 가톨릭교도들은 자신들의 영토에서 균등한 교육기회로부터 소외된 역설적 상황에 놓였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초기대학이 지녔던 국제적 성격이 20세기 초 아일랜드의 열악한 고등교육상황을 역설적으로나마 재조명해준다면, 보다 직접적으로 현 논문의 주제와 맞닿는 맥락은 그러한 볼로냐, 파리 대학의 국제성이 12-13세기 아일랜드에 끼쳤을 동시대적 영향이다. 조이스가 「죽은 자들」을 집필 중이던 1907년 트리에스테 민간대

3) 브리태니카 백과사전은 기존의 중세고등교육기관과 대학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The modern university evolved from the medieval schools known as *studia generalia* (singular, *studium generale*); they were generally recognized places of study open to students from all parts of Europe. The earliest studia arose out of efforts to educate clerks and monks beyond the level of the cathedral and monastic schools. Inclusion of scholars from foreign countries constituted the primary difference between the studia and the schools from which they grew."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Vol. 12, 15th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65.

학(Trieste Universitas Poplare)에서 행한 강연 「아일랜드, 성자와 현자의 섬」(Ireland, Island of Saints and Sages)에서도 역설하였듯, 성 마카리우스("Saint Macarius"), 베르길리우스(Vergilius), 에리우게나(Eriugena)와 같은 대학자들을 배출하며 신학의 보고 역할을 해온 아일랜드의 전통 수도원학교들은 12세기말 아일랜드의 영국체제하 편입으로 그 독보적 위상에 결정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우연이라 간과하기엔 너무도 중요한 사실은, (조이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일랜드가 유럽에서 지적 동력이길 멈춘"(*CW* 161) 바로 이 시점이 공교롭게도 서구대학의 출현과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그로부터 근 7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이 7세기의 기간은 아일랜드의 지난한 식민지사를 가리키는 동시에 서구대학의 끊임없는 발전과 팽창을 의미하기도 한다—아일랜드는 옛 영화의 회복은커녕 자국민들의 교육조차 책임질 수 없는 암울한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신학이 하나의 보편적, 절대적 학문으로 추앙 받고, 그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라틴어라는 하나의 확고부동한 버팀목에 의해 행해지던 시절 아일랜드가 쌓았던 독보적 입지는 식민치하에서는 버거운 유산이자 특수하고도 예외적인 장애요소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조이스가 한때 자신이 꿈꿨던 성직자의 길을 포기하기로 결정하는 데에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얼마나 영향을 끼쳤을지는 알 길이 없다. 신부가 된 자신의 형(혹은 아우)과달리 인문학의 길을 택한 「죽은 자들」의 가브리엘 경우에서처럼 기껏해야 몇 가지 추측이 가능할 뿐이다.

하지만 다음 한 가지 사실 만큼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막상 작가의 길에 들어섰을 때 조이스가 문학에 부여한 절대적 가치는 중세의 기독교가 상정한 그런 의미에서의 보편성을 담보로 했고 ('가톨릭'이라는 말이 어원적으로 일반성, 보편성을 뜻한 다는 점을 상기해두자), 또 동시에 당시 명실상부한 '링구아 프랑카'(lingua franca)로 자리매김해가던 제국의 언어, 즉 영어를 기반으로 했다는 사실이다. 극중에서 미스 아이버스가 가브리엘에게 "자신의 언어... 아일랜드어"(*D* 189)에 대한 책임 여부를 추궁할 때, "아일랜드어는 내 언어가 아네요"라는 이어지는 가브리엘의 대답은 이러한 새 보편성에 기초한 조이스의 작가적 결단을 간접적이자 반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매몰찬 결단이 수반하는 피식민주의자로서의 복잡하고도 뒤엉킨 심경과 함께? 문학작품과 작가적 삶의 연관성이라는 해묵은 주제는 뒤에서 재차 다루게 될 터이지만 텍스트로 돌아가기 전, 여기서 대학문제와 관련해 한 가지 더 짚어볼 것이 있으니 선생조합이라는 존

재가 바로 그것이다.

앞서 우리는 서구대학이 학생조합과 선생조합이라는 두 개의 형태로 출발했다는 사실의 역사적 의의를 지적했다. 하지만 보다 정확히 말해, 후세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요소는, 뒤따르게 될 거의 모든 대학들의 원형이 된 파리 대학 내에서 어떻게 두 조합체계가 합쳐져 혼합되었는가 이다. 형성 시기는 비록 선생조합이 학생조합을 조금 앞섰을지는 모르나, 일단 학생조합체계가 파리 대학 내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 위력은 전자의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신학과를 중심으로 형성된 기존의 선생조합은, 학위수여(inception)와 교육면허(license to teach)교부라는 두 전통적 제도에 기반한 명목상의 존재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Rashdall 651-52). 이러한 사실은 1200년대 작성된 파리 대학의 초기 학칙에서도 입증되는데, 학칙이라고 명시된 규정은 단 3개뿐으로 선생들의 복장, 강의체계, 그리고 동료선생의 사망 시 장례참석에 관한 것이 그것이다.

이에 반해 1219년경 볼로냐에서 건너온 학생조합체계는 그 수적 구성이나 활동력에 있어 월등한 우위를 보였다. 뒤이어 개설된 교회법학부, 의학부와 더불어 상급학부를 이루게 된 신학부가 조직의 체계는 물론 자체적인 대표조차 갖지 못했던 반면, 프랑스(France), 노르망디(Normandy), 피카드(Picard), 영국(England)이라는 4개의 동향단(nation)으로 구성된 학생조합은 자체적으로 4명의 대표자를 선출해 대학의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는 교양학부를 대표하는 동시에, 대학의 실질적 수장이라 할 학장(rector)을 뽑아 학교운영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Rashdall 667-9). 자신들의 주장을 학사행정에 관철시킴으로써 학내 주도권을 장악한 교양학부와 수세에 몰린 상급학부간의 갈등은 그 후 대학의 변천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문헌학과 수사학의 부활을 주창한 르네상스 인문학자들의 등장이 이렇게 급부상한 교양학부의 실력행사의 한 예라면, 18세기말 칸트가 목도한 "학부간의 논쟁"(*The Conflict of the Faculties*)은 대학 밖 세속적 권력과의 결탁으로 말미암아 비대해진 상급학부의 권력에 대한 반증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학내의 갈등이 두 학부 간에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과학기술의 발전은 19세기 들어 자연과학 전반의 위상을 급상승시켰고, 이와 함께 불거진 인문학 위기론이 오늘날에도 결코 진부한 화제가 아님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이 끝없는 내적 갈등과 반목에도 불구 대학의 존속을 가능케 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이 학자들의 집단을 그토록 오래 존립케 한 것일까? 장수의 비결을 바로

그 지속적인 논란과 논쟁 자체에서 찾는다면 동어반복처럼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논쟁의 다른 한 축으로 상정된 무엇인가가 있다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모든 논란과 논쟁이 언제나 앞서 전제하고 있는 것, 논쟁이 아무리 격렬하고 비루하게 치달을 지라도 아니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직업적 기반을 담보해주는 대학이라는 조직의 와해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무언의 원칙, 또는 한계선을 가정한다면 말이다. 사학자 헤이스팅스 라시델(H. Rashdall)은 파리 대학의 초기 3학칙과 관련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규칙들의 과도한 단순성, 그리고 그 규칙의 제정이 새로운 사건이라 언급되는 사실로 미루어보아, [파리 대학의 3학칙]은 [선생조합] 단체가 만든 최초의 공식문건임이 분명하다. 비록 활자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이전에 확립돼있던 직업적 관례의 첫 문서화인 것이다. (Rashdall 655)

"활자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이전에 확립돼있던..."—대학의 장기 수명의 원인은, 어쩌면 이렇게 암묵적으로 설정된 룰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선생조합 형성 이전의 유수 직업선배들처럼 교회에 부속된 개별적 존재로, 혹은 아벨라르와 같은 떠돌이선생의 신분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는 또 하나의 원칙 아닌 원칙? 다시 말해 대학의 긴 수명의 근본적 원인은, 이러한 대학선생들 간의 필사적 결속이라는 다른 모든 규율을 초월하고 포괄하는 일종의 절대적 원칙이 아닐까?

물론 가브리엘과 미스 아이버스라는 두 대학 선생이 이러한 문제를 의식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나친 억측일 것이다. 더구나 흥겨운 리듬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둘의 상황에서는 말이다. 두 극중 인물이 짧게나마 두 손을 맞잡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다. 허나 대학에 관한 둘의 대화가 이러한 근원적 원칙—다시 말해, 논의 자체가 어떠한 파괴력, 파급력을 지닌다 해도 그것은 우리끼리의, 우리 사이의 얘기일 뿐, 학자로서의 우리의 신분이나 입지를 뒤흔들 수는 없다는 무언의 약속—을 어떤 형태로든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면, 또 그래서 13세기 이래 모든 서구대학이, 대학 선생이 답보한 그 비예외적 (혹은 보편적) 한계점 안에 한 발을 내딛고 있을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작품의 후반부와 관련 다음과 같은 일련의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파티가 끝나고 아내와 함께 호텔에 도착한 가브리엘이 행하는 마지막 독백에서, 이제껏 자신을 지탱해준 세계가, "견고한 이 세계 자체가... 해체되고

줄어들고 있다"(*D* 225) 했을 때 그 해체 대상은 주인공 가브리엘이 그때까지 학자로서 상정해왔던 모든 전제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서쪽으로 여행을 떠날 때가 왔다"(*D* 225)는 그의 뒤따르는 발언은, 설사 그것이 중세 이주노동자 신분으로의 회귀를 뜻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더 이상 그 어떤 암묵적 룰이나 원칙도 적용될 수 없는 새로운 시/공간의 도래를 예시하는 건 아닐까? 이러한 일련의 물음이 결코 근거 없지만은 않다는 사실은, 위 발언에 앞서 등장하는 또 하나의 고백, 즉 "열정의 정점에서 저 다른 세상으로 과감히 떠나야 하리라"(*D* 224)라는 가브리엘의 대사와 연관시켜보면 한층 더 신빙성을 띄게 된다. 허물어져 버린 현세계를 대체할 다가올 세상은 적어도 상아탑으로 상징되는 지식이나 이성에 토대를 둔 세계가 아닐 것임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특히나 대학이라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 어쩌면 바로 이러한 가정이 사태의 본질을 흐려버리는 것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라는 또 하나의 예외적이고도 불가사의한 사회체제가 그렇듯, 대학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위기를 먹고, 그 위기를 자양분 삼아 번성해온 기이하고도 예외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작품의 종결부에 나타나는 가브리엘의 내적 성찰은 과연 얼마나 진실된 것인가?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가브리엘 자신이 미스 아이버스에 대해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Was she sincere?")(*D* 192) 그의 마지막 제스처는 어쩌면 구세계 수호를 위한 또 한 번의 계산된 술책은 아닐까? 누구보다 철저한, 적어도 그렇게 비칠 자기비판을 통해—그리고 물론 비판의 엄밀성, 세련됨에 있어 학자를 능가할 존재는 없다—끝까지 기존체제와 그 안에서 대학선생으로서의, 혹은 지식인으로서의 자신의 기득권을 방어하려는 고도의 책략은 아닐까?

III.

한 손으로 파괴한 것을 다른 한 손으로 보존해, 보강한다는 것. 이러한 자기모순적인 작업이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닌즉, 물론 우리는 이를—적어도 조르쥬 바타이유(G. Bataille)나 자크 데리다(J. Derrida) 같은 철학자들을 뒤따라—헤겔(G. W. F. Hegel)의 변증법이라 부른다. 일찍이 데리다는 「폭력과 형이상학」("Violence and Metaphysics") 에서 조이스를 "근대소설가 중 아마도 가장 헤겔주의적"인 작

가라 역설한 바 있다(*Writing and Difference* 153). 조이스의 저작이 집대성한 지식의 방대함도 방대함이지만, 그러한 글쓰기가 시야에 들어오는 무엇 하나 남김없이 포섭해 통합하려 한다는 점에서 헤겔적 절대정신이 추구하는 끝없는 지양작업을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데리다의 이러한 지적은 두말할 나위 없이 『율리시즈』(*Ulysses*)나 『피네간의 경야』(*Finnegans Wake*) 같은 저자의 후기작들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것이다. 1985년 발표된 「율리시스 축음기」("Ulysses Gramophone")에 등장하는 동철학자의 다음 지적이 그렇듯이 말이다.

> 만일 [조이스의 근대성이란 것이] 성립한다면, 그 근대성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연유할 것이다. 즉, 바벨신화를 연상시키는 수세기 간의 정신함양작업에 대학학자들을 동원하겠다는 [저자의] 공언된 기획은 종전에 존재할 수 없었던 테크놀러지 모델과 대학노동의 분업체계를 활용함으로써만이 그 구상 자체가 가능했다는 사실이다. (*Acts of Literature* 280)

「죽은 자들」을 매듭짓는 '양수겸장'의 제스처가, 뒤따를 대작들이 전제하는 "대학노동의 분업체계"를 앞서 예고하고 있다면 이 또한 과도한 억측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데리다의 주장이 작가의 후기작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비록 백과사전식 지식의 나열이나 통합을 재현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어떤 의미에서 『더블린 사람들』의 마지막 단편은 조이스 말년의 저작들이 시도한 급진적인 보편화, 혹은 전체주의화로의 경향을 이미 텍스트 차원에서 뚜렷하게, 그것도 그러한 전체주의화로의 편향을 가로막는 작가 특유의 전복적 유머는 사상된 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죽은 자들」의 종결부를 수놓는 장엄하고도 불가사의한 설경의 이미지, 현대문학사상 가장 아름다운 결말 중 하나로 손꼽히는 마지막 눈의 서술부는 기실 그러한 총합적인 비전의 발현이 아닌가? 그것도 대학선생이라는 극중 주인공의 정체성과 맞물려, 지난 한 세기 간 "대학교수들을 끝없는 논쟁으로 내몰아" 온 그 많은 수수께끼와 퍼즐(Ellmann 521) 중의 전형적 예가 아닌가?

기존의 많은 조이스 비평문들이 여러 다양한 각도에서 「죽은 자들」의 결말부분 해석에 천착해온 바, 여기서는 대학이라는 화두와 연관 지어 작품의 마지막 단락, 그 중에서도 마지막 문장에 등장하는 낱말 하나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보고자 한다. 아래 인용문 하단, 볼드체로 부각된 '우주'(the universe)가 그것이다.

> 그래, 신문이 옳았다. 눈은 아일랜드 전역에 내리고 있었다(snow was general all over Ireland). 어두운 중앙평원과 나무 없는 언덕 위에도 눈은 내렸고, 앨런 늪과 그보다 더 서쪽으로, 시커멓게 솟구쳐 오르는 새넌강 파도 위로도 소리 없이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눈은 마이클 퓨리가 묻혀 있는 언덕 위 외로운 교회 마당에도 구석구석 빠짐없이 내렸고, 바람에 흩날려 빙퉁그러진 십자가와 묘석들, 그리고 작은 문의 뾰족한 문설주와 메마른 가시나무 위로도 수북이 쌓여가고 있었다. 눈이 우주에(through **the universe**) 희미하게, 마치 그들의 종말을 알리듯 모든 산자와 죽은 자들 위에 희미하게 떨어져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가브리엘]의 영혼은 천천히 잠이 들어갔다. (*D* 225, 필자강조)

왜 하필 '우주'라는 엉뚱하고도 과장된 표현을 저자는 선택한 것일까? '우주'라는 낱말이 주위 문맥과 함께 자아내는 긴 울림의 정체를 가늠키 위해선 일차적으로 서사 전체에 걸쳐 내려 쌓이는 눈과 그에 연계된 여러 모티프들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번역 상 그 연관성이 파묻혀버리기 쉬운, 'general'이라는 단어가 우주(universe)에 대비해 갖는 어원적 근접성 역시 주목을 요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그러한 텍스트 내적 요소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의문은 남는다. 그리고 그 의문은 크게 다음 두 개의 상충되는 물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우주'라는 자못 숭엄하고도, 승화적인 표현은 어쩌면 조이스가 채 걸러낼 수 없었던 낭만주의적 갈망의 돌출적 표출은 아닐까? 『율리시스』에 가서야 비로소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될 견습적 문체의 흔적? 아니면 반대로 그것은 선대의 유산을 소화했다는 단언적 증표인 것일까? 선배문학가들은 꿈조차 꿀 수 없었던 폭과 스케일의 보편성에 자신의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확신에 찬 공언?

이런 포괄적이고, 귀납적인 문제 제기가 자칫 데리다가 경고한 '정신함양작업'의 일환으로 (즉, 초기작에서부터 이미 조이스는 그의 천재성과 이에 정비례하는 광대한 포부를 작품의 치밀한 형식적 장치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거나, 또는 그 역으로—하지만 그 근본에 있어서는 동일한 발전사관에 입각해—조이스 같은 천재조차도 초기 작품에서는 작가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등의)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에도 불구 우리의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까닭은, '우주'라는 표현이 자아내는 해명키 힘든 여운에 있다. 일찍이 프레드릭 제이므슨(F. Jameson)은 「모더니즘과 제국주의」("Modernism and Imperialism")에서 E. M. 포스터(Foster)의 1910년 소설 『하워즈 엔드』(*Howards End*)에 등장하는 "무한대"(infinity)라는 한 용어의 텍스트적 기능에 주목한바 있다. 작품의 종반부에서 먼트 부인이 기차 창밖을 바

라보며 사색에 잠길 때 등장하는 이 낱말은, 단지 영사기술적 감각에 기대어 스치는 외부의 풍광을 응시자/화자의 시각에서 함축적으로, 또는 유사(pseudo) 낭만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영국 식민지에서 행해지던 노동착취의 현실로부터 완벽히 차단된 제국의 주체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의 파편을 밑천 삼아 나름대로 총체적 비전을 구성해보려는 욕망의 발로이자 반영이라는 것이다. 제이므슨이 보기에 『하워즈 엔드』와 같은 세기 초 영국문학작품에서 두드러지는 이와 같은 추상적 개념의 차용은 당시 새롭게 등장한 제국주의 체제 아래에서 예술작품이 봉착하게 된 재현적 갈등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다. 제국 자본주의가 나날이 생산·증폭시키는 "불가능한 의미에 대한 욕구"와 이와 함께 가시화해가는 "물리적 사물의 우연성" 사이의 괴리에 가로놓인 일군의 모더니즘 작가들에게, 후기 낭만주의자들이 즐겨 쓰던 형이상학적 용어의 재활용은 비록 미봉책으로서나마 너무도 매혹적인 탈출구를 마련해주었고(55), 따라서 이렇게 의도적인 치환 또는 서사의 임의적 종결(closure)의 완성을 그 목적으로 하는 옛 단어들의 재활을 단순히 "낭만적으로 반도시주의적인 혹은 반근대적인 향수"(57)의 발로로 읽어내는 건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다.

동 에세이에서 제이므슨은 이러한 영국 모더니즘의 형식적, 미학적 전략들을 『율리시스』의 그것과 대비시킨다.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좁은 지형에 밀집된 더블린이라는 도시의 특수공간은 (달리 표현하자면 이 예외적인 반—semi—식민지적 상황은) 작가로 하여금 억지스러운 서사의 종결구조를 배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었고, 또 나아가 포스터 류의 작품에서 확인되는 특정 문체에 대한 집착을 넘어설 수 있는 배경적 조건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제이므슨이 행하는 포스터와 조이스의 비교가 흥미로운 건 두 가지 관점에서인데, 그 하나는 비평가가 논지의 초점을 『율리시스』에 한정 집중시킨다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적어도 해당 논문에서—제이므슨이 간과하는 『율리시스』의 공간적 미종결성과 관련해서이다. 먼저, 제이므슨이 "월터 페이터(W. Pater)적인 매너리즘의 흔적으로 확인되는... 개인적 스타일[의 구현]이 『율리시스』에서는 중요한 부사(adverb)의 자의식적인 배치로 밖에 남아 있지 않다"(61)고 주장할 때, 이는『율리시스』가 특정 스타일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롭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비롯된 지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이므슨의 강조는 역으로 『율리시스』 이전의 작품에서는 그러한 페이터적인 형식의 문체가 뚜렷하게, 빈번히 등장함을 방증함에 다름 아니

다. 페리 마이젤(P. Meisel)을 비롯한 여러 비평가들이 지적하였듯 페이터적인 문체적 스타일의 영향은 「죽은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페이터의 『상상의 초상화』(*Imaginary Portraits*)를 다각도에서 연상시키는 『젊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에서도 곳곳에서 발견되니까 말이다(Meisel 125-6). 두 번째로, 비록 위 에세이에서 제이므슨은 "『율리시스』에서는 종결과 의미를 획득하기 위해 공간이 상징적으로 변형될 필요가 없다. 식민지 상황이 그 [공간적, 의미적] 종결성을 객관적으로 만들기 때문이다"(61)라고 힘주어 역설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12년 후 출판될 『독특한 근대성』(*A Singular Modernity*)에서 제이므슨 자신이 인정하듯이, 조이스의 "도회적 경험을 완성시키고, 어떤 면에서는 규정짓는다 할 급격한 타자"로서의 역할을 시골이라는 (적어도 저자 조이스에게는) 낯설고도 불편한 존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A Singular Modernity* 142).

두 말할 나위 없이 이러한 타자적 존재로서의 시골의 문제는 「죽은 자들」에서 미스 아이버스가 가브리엘에게 상기시키는 핵심주제이다. 또 그런 관점에서 『피네간의 경야』라는 저자의 마지막 작품이—제이므슨의 표현을 빌자면—그 "과감한 보편화" 작업을 감행하기 전까지는 조이스의 그 수많은 형식적 실험에도 불구하나의 미완의 숙제로 남아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포스터의 '무한대'로 돌아가, '우주'의 의미를 되새겨보도록 하자.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하워즈 엔드』에서와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영사기술적 이미지들이 이어지는 「죽은 자들」의 종반부에서 (호텔 창문에서 출발한 가브리엘/화자의 시선이 삽시간에 아일랜드 전역을 훑는 걸 보라!) '우주'라는 낱말은 과연 포스터의 '무한대'와 어떻게, 얼마나 다르게 기능하는가? 혹 「죽은 자들」의 결말은 포스터의 작품과는 또 다른 성격의, 또 다른 양태의 모순을 은폐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주(the universe)—대학(university)—보편성(universality). 이미 눈치 채지 못한 독자들에게도 이 세 낱말을 잇는 연결고리가 단순한 대시(dash)만은 아님은 명백해 보일 것이다. 앞서 '대학'의 원의미를 되새기면서 살펴보았듯 비록 '대학'이 '보편성'이나 '우주'와 동일한 어원적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닐지라도, 세 낱말 모두가 하나의 단어 'universus'에서 비롯되었음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어원적 동질성이 그 자체만으로 어떤 독자적 의미를 획득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우연의 일치는 이제까지 대학과 우주에 관해 논의한 사항들을 정리할 하나의

유용한 해석적 틀을 마련해주니, 이제 위 인용문단과 비교해 볼 조이스의 에세이 「제임스 클라랜스 맹건」("James Clarence Mangan")이 이를 위한 그 첫 번째 방향을 제시한다. 「죽은 자들」 집필에 몰두 중이던 1907년, 저자는 앞서 언급한 「아일랜드, 성자와 현자의 섬」에 이어 트리에스테 민간대학에서 행할 두 개의 추가 강연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19세기 아일랜드 요절시인의 이름을 제목으로 한 「제임스 클라랜스 맹건」이다. 서론을 제외한 강연의 주 내용은 1902년 저자가 UCD 재학시절 발표한 동명의 연설문과 거의 흡사한데, 주목할 점은 아래 병치된 두 문단이 드러내는 미세한, 하지만 우리의 관점에서는 현격한 차이이다.

> 결과적으로 [맹건이] 숭배한 대상은 한 명의 가련한 여왕으로 보일 것인 즉, 그녀는 때로는 자신을 가해자로 또 때로는 피해자로 내몬 끔찍한 범죄적 행위들로 말미암아 한편으로는 광기라는 현실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죽음이라는 미래와 대면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다가올 죽음을 믿지 않았고, 이미 멧돼지들의 먹이가 되어버린 자신의 성스러운 정원과 크고 아름다운 꽃들이 누군가의 침입에 의해 위태롭게 됐다는 아득한 음성의 소문만을 기억했을 뿐이다. **노발리스(Novalis)는 사랑을 "우주의 찬동"이라 정의한바 있다.** 맹건은 증오의 아름다움에 관해 말할 수 있었다. **순수한** 증오는 **순수한** 사랑만큼이나 **멋들어진** 것이다. **열정적인 영혼**의 소유자는 맹건의 종족이 지녔던 위대한 전통—그러니까 절망, 무서운 위협, 그리고 **슬픔 그 자체에 대한 사랑**—을 가차없이 내던져버릴지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전통의 목소리가 단지 인내심을 요하는 지고의 애원이라면 그것은 일종의 작은 은총일지도 모른다. 하긴, 위대한 신념만큼이나 공손하고 끈질긴 것이 또 어디 있다는 말인가? (*CW* 1902: 82, 필자강조)

> [맹건이] 사랑한 대상은 한 명의 가련한 여왕의 형상을 띄는 즉, 그녀는 때로는 자신을 가해자로 또 때로는 피해자로 내몬 끔찍한 범죄적 행위들로 말미암아 한편으로는 광기라는 현실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죽음이라는 미래와 대면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다가올 죽음을 믿지 않았고, 이미 멧돼지들의 먹이가 되어버린 자신의 성스러운 정원과 크고 아름다운 꽃들이 누군가의 침입에 의해 위태롭게 됐다는 아득한 음성의 소문만을 기억했을 뿐이다. **절망, 소리 높여 울려대는 위협, 그리고 슬픔에 대한 사랑—바로 이러한 것들이 제임스 클라렌스 맹건의 민족이 지켜온 거룩한 전통이며, 그 여위고 힘없는 빈약한 표상에서 이성을 잃은 민족주의는 마지막 변명을 구한다.**
>
> (*CW* 1907: 185-86, 필자강조)

조이스의 비평문을 편집한 엘스워스 메이슨(E. Mason)과 리차드 엘만(R.

Ellmann)이 지적하듯, 5년 전 것에 비해 1907년 에세이는 훨씬 힘이 있고, 선배문학가에 대한 조이스의 비평적 입지가 한층 더 강화되어 있다(*CW* 175). 이와 함께 우리는 전자에 등장하는 일련의 낭만주의적 표현들이—정확히, 노발리스(Novalis)의 '우주' 관련 인용문과 월터 페이터(W. Pater)가 즐겨 사용한 여러 문구들의 반복이—수정본에서는 아일랜드의 민족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에 그 자리를 내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 자체가 특기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문제는 같은 해 훨씬 더 심열을 기울였을 그의 작품 「죽은 자들」에서는 왜 그러한 유사 낭만주의적 흔적이 남아있는가 이다. 페리 마이젤을 비롯한 여러 비평가들이 강조해왔듯, 「죽은 자들」, 특히 텍스트의 마지막 문단은 글의 리듬이나 표현과 같은 형식에서는 물론 자의식의 소멸이라는 주제적 측면에서도 페이터의 『르네상스』(*Renaissance*)의 마지막 장을 거의 축어적으로 모사하고 있기 때문이다(Meisel 125-26). "우주"라는 단어의 출현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지 않을까? 즉 앞선 페이터 관련 인유와 마찬가지로 (조이스에 앞서, 노발리스의 경구를 자신의 저작 종반부에 적절히 인용한 것 역시 페이터였다는 사실을 상기하도록 하자. Pater 152) 자신의 수정된 연설문에서는 삭제되었지만 작품에서는 의도적으로 각인된 노발리스에 대한 우회적 언급으로?

제이므슨이 『하워즈 엔드』를 논하며 환기시키듯, 중요한 것은 '우주'라는 낱말이 지니는 본원적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표기로서 텍스트에서 수행하는 기능이다. 그리고 그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텍스트의 내적 요소들은 물론, 텍스트의 구성조건을 경계 짓는 역사적, 지리적 배경 그리고 나아가 집필 당시 작가의 현실상황 같은 여러 외적 요인들을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다. 조이스가 자신의 학부 4학년 연설문 「제임스 클라랜스 맹건」에 재수정을 가하기까지 걸린 5년이라는 세월이 우리의 주의를 요하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그 5년이라는 세월은 젊은 예술가로 하여금 더블린에서 파리, 그리고 다시 더블린을 경유해 폴라, 트리에스테, 로마, 그리고 다시 트리에스테로 내닫는 방랑의 삶을 강요했다.

장래가 총망 받던 대학생에서 유럽 곳곳을 전전하며 영어회화를 가르치는 학원선생이자, 파트타임 작가 겸 신문기고가, 그리고—로마에서 잠시 은행직원을 거쳐—이제 운 좋게 (초빙 강연자로서나마) 대학 강단으로 이어진 그의 숨 가쁘고도 가파른 실존 행로는, 일차적으로 대학선생이라는 가브리엘 콘로이의 정주적 입지

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Ellmann 255). “프랑스나 벨기에 아니면 독일”로의 자전거 여행을 꿈꾸는 작품 내 작가의 분신과 당장 다음날 일거리, 먹거리를 걱정해야 하는 작가 자신의 현실 사이에는 미스 아이버스와는 비견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간극이 존재하니까 말이다. (조이스는 일찍이 자신의 평생 반려자가 될 노라 바나클—Nora Barnacle—에게 보낸 1904년 편지에서 “나는 부랑자로서 밖에는 사회체제에 진입을 할 수가 없다”고 고백한바 있다: Ellmann 169) 하지만 보다 특기할 만한 점은 작가의 그러한 파행적 삶이 부각시키는 타자의 문제이다. 떠돌이적인 자신의 삶이 끊임없이 반복해 상기시켰을 이방인으로서의 위상도 위상이지만, 모국에서의 유년기 이래 근 17년에 달하는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트리에스테는 그로 하여금 또 다른 차원의 타자적 존재성을 일깨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이스의 트리에스테 체류기를 추적한 존 맥코트(J. McCourt)는, 20세기 초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지배를 받던 아드리아 해의 항구도시가 당시 서구에서 얼마나 예외적인 공간이었던가를 지적한바 있다(McCourt 41-43). 한편으로는 독립을 향한 혁명적, 민족주의적 기운으로 요동치던 트리에스테는, 다른 한편으로는 동서고금의 이질적 문화로 북적거리는, 여타 메트로폴리스와는 차별화된 세계주의적 면모를 자랑하고 있었다. 주류사회로부터 한 번도 환영받지 못했던 조이스에게 이러한 분위기가 전에 접할 수 없었던 매혹적 친근감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이제까지 자신을 둘러싼 서구중심적 사고를 재고해보는 기회를 마련해주었음은 따로 부연이 필요 없을 것이다. (일례로 조이스는 그의 첫 번째 트리에스테 강연 「아일랜드, 성자와 현인의 섬」에서 아일랜드어의 뿌리가 동양이라는 파격적인 주장을 전개한바 있다) 저자가 자신의 5년 전 연설문 「제임스 클라랜스 맹건」에 가한 첨삭은 바로 이러한 상황적 변화를 반영한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그가 마주할 트리에스테 청중들에게 노발리스나 페이터와 같은 독일·영국의 낭만(혹은 후기낭만)주의에 대한 언급이 과연 어떤 반향을 일으킬 수 있었겠는가?

이러한 첨삭의 문제가 결코 부차적이지 않는 이유는 「죽은 자들」에서 가브리엘 역시 비슷한, 하지만 그 성격상에서는 판이한 언어적 수정작업을 몸소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찬담화를 준비 중이던 주인공은, 조금 전 미스 아이버스가 보였던 무례함(춤을 출 때 자신에게 던졌던 장난 섞인 힐난)을 의식하며 다음과 같이 되뇐다.

그는 연설할 주요 내용을 훑어보았다. 아일랜드 사람의 환대, 슬픈 추억들, 아름다운 세 여신, 파리스, 브라우닝 시 인용. 그는 자신이 서평에 썼던 구절을 스스로에게 반복해보았다. **우리는 사유로 고통 받는 음악을 드는 느낌을 갖게 된다.** 미스 아이버스는 그 서평을 칭찬했다. 진정이었을까? 그녀는 정말 그 온갖 선동주의 뒤편에 그녀 자신의 삶이란 걸 갖고 있을까? 이전까지만 해도 그들 사이에 아무런 악감정이 없었다. 그가 만찬 담화를 하는 동안 그녀가 식탁에 앉아 그 비판적이고도 비웃는 듯한 눈길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그는 지레 힘이 빠졌다. 아마 그녀는 그가 연설을 망친다 해도 전혀 안타까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생각 하나가 떠올라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는 케이트 이모와 줄리아 이모를 빗대어 말할 것이다. **신사 숙녀 여러분, 지금 우리들 가운데 저물어가는 세대는 나름의 잘못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 세대는 친절함, 해학, 인간미라 할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품이 우리들 주변에 자라나고 있는 새롭고 진지하고 또 과잉교육을 받은 세대들한테는 결여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좋아. 그거야 말로 미스 아이버스 보고 들으라고 하는 말 이였다.
(*D* 192-93, 필자강조)

미스 아이버스가 갑작스레 파티를 떠나는 바람에 가브리엘의 가시돋힌 의도는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수정된 작자의 두번째 「제임스 클라랜스 맹건」 에세이가 예정된 강연회의 무산으로 말미암아 그 실제 관객을 잃어버리게 되듯이 말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두 개의 수정작업이 시사해주는 바는 명확하다. 후자가 불러일으킨 일련의 크고 작은 텍스트의 수정이, 그 반응을 미리 예측, 간파할 수 없는 이국인들을 위한 준비작업이라면, 전자는 미스 아이버스처럼 주인공에게는 너무도 친숙한, 파티에 초대된 지인들을 염두에 둔 계산된 포석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작품의 후반부에 가서야 (아내의 죽은 옛 애인과의 상상적 대면을 통해) 비로소 주인공이 맞닥뜨리게 될 절대적 타자의 현존성이 수정된 발표문에는 그 여백에 이미 아로새겨져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더불어 한 가지 추가 강조해야할 것은 「죽은 자들」에서 저녁담화라는 일종의 비공식 연설에 임하는 가브리엘의 자세가 대학선생으로서의 그의 극중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다면, 1902년 그리고 1907년에 각각 집필, 수정된 두 편의 「제임스 클라랜스 맹건」 에세이는 집필 당시 저자 자신의 대학생 그리고 대학외부인사로서의 (즉, 대학이라는 기관에 있어서는 또 하나의 타자적) 위상을 상기시킨다는 점이다. 교수와 학생, 또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라는 (일면) 단순한 이항대립을 이미 그 내부로부터 문제화시키고 허무는 이러한 실존과 허구 사이의 삼항구조는, 뒤따를 조이스의 작품에서도 그

양태를 바꿔 재등장한다.

일예로 『더블린 사람들』 완성 후 또 한 번의 긴 수정작업을 요할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주인공 스티븐 데덜라스(Stephen Dedalus)는 그 자신이 학생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미학이론을 설파하는 선생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항시 자신의 한 발을 학교의 제도화된 교육 바깥에 내딛고 있는 외부인/타자이기도 하다. 흥미로운 점은, 『스티븐 히어로』(*Stephen Hero*)에서와는 또 다른 차원의 비판적, 타자적 거리감에 입각해 저자의 성장과정을 추적하게 될 이 반(semi)자서전적인 소설에서 '우주'라는 단어가 저자의 다른 어느 작품에서보다 빈번히, 반복해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참고로 『더블린 사람들』의 마지막 문단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우주'는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는 무려 12번, 그것도 첫 장에서만 4번—즉, 『율리시스』에서의 총 등장횟수와 동일하게—등장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타자라는 문제가 '우주'와 어떤 상관관계를 지니는 걸까?

앞에서 국제적 성격의 학생조합이 파리 대학의 발전과정에서 행사한 절대적 영향력을 논하며, 우리는 동대학의 선생조합이 지녔던 초기 3학칙을 언급한바 있다. 학교 내 선생들의 복장, 강의체계, 그리고 동료교사의 사망 시 장례참석 책임이 바로 그것이다. 흥미로운 건 이 3학칙이 「죽은 자들」과 대비해 드러내는 주제적 근접성이다. 즉, 위 인용문에 뒤따르는 가브리엘의 저녁담화가, 물음(Quaestio), 토론(Disputatio)과 함께 대학 강의의 근간을 이루는 일종의 강독(Lectio)을 연상시킨다면, 그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아내의 죽은 옛 애인 마이클 퓨리(Michael Furey)는 동료의 장례 참석이라는 책임의 절대적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한층 더 흥미로운 것은 복장이—보다 더 정확히 말해 신발이—작품과 관련해 보여주는 주제적 밀접성인데, 이는 '우주'라는 낱말의 텍스트적 기능을 조명해주는 동시에 이제까지 우리의 논의를 본 글의 주제인 대학문제로 귀결시켜줄 것이기에 간략하게나마 이를 매개로 작품을 돌아보기로 하자.

IV.

작품의 도입부에서 잊을 수 없는 장면 중 하나는 두말할 나위 없이 가브리엘의 등장이다. 텍스트는 처음부터 그가 자신의 복장에 대해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긴 설명이 할애되는 것은 그가 자신의 신발에 대해 기울이는 세심한 주의인데, 주목할 점은 무려 3페이지에 걸쳐 (*D* 176-78) 반복되는 신발 관련 묘사가 곧이어 획득하게 되는 주제적 무게이다.

> [가브리엘은]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구를 [저녁담화에] 넣을까 말까 망설였다. 듣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았으므로, 그들이 알아듣게끔 셰익스피어 아니면 아일랜드 서정시집을 몇 줄 인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았다. 사람들의 구두 발굽이 거칠게 뚜벅거리는 소리며 구두창 끄는 소리가 그들의 문화수준이 자기와 다르다는 것을 상기시켜주었다. (*D* 179)

파티에 모인 여러 친지, 친구들로부터 자신의 지적·신분적 우월성을 각인, 부각시켜주는 이러한 신발 관련 언급은 하지만 거기서 끝을 맺지 않는다. 서사 전체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금씩 그의 자신감을 손상시키는, 그래서 작품의 후반부 주인공의 자아적 정체성 해체라는 결정적 사건에 기여하는 세 여자 또한—즉, 모간가의 하녀 릴리(Lily)와 미스 아이버스 그리고 아내 그레타(Gretta)—어떤 식으로든 신발 관련 이미지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릴리의 경우 175쪽, 그레타 콘로이의 경우 181쪽과 214쪽, 그리고 미스 아이버스는 190쪽에 제시되어 있다. 잊을 때쯤이면 한 번씩 재등장하는 신발/발 관련 이미지들이 각기 교육(혹은 교양), 계급, 성, 결혼의 문제에서 대두되는 등장인물간의 비대칭성을 직간접적으로 부각시켜준다면, 이러한 파편적 이미지가 각 등장인물들을 뒤따르는 일종의 잔영, 혹은 흔적으로 남아 궁극적으로 하나의 모티프(motif)로 뭉쳐져 다다르는 지점은 파티가 끝나고 가브리엘과 그레타가 도착하는 그레셤 호텔(Gresham Hotel)이다.

> 어쩌면 그녀는 그에게 얘기를 전부 털어놓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의 눈길은 그녀가 옷가지 몇 개를 던져놓은 의자로 옮아갔다. 페티코트 끈이 마루까지 대롱거리고 있었고, 부츠 한 짝은 나긋나긋한 윗부분이 꺾여진 채 바로 서있었으며 다른 한 짝은 그 옆구리에 기대어 누워 있었다. 그는 한 시간 전 자신의 길길이 뛰던 감정들이 의아스러웠다. 그 감정들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
> (*D* 223-24)

「죽은 자들」과 『젊은 예술가의 초상』을 비교한 일전의 한 논문에서, 본 필자는 전자에서 대두되는 신발/발 관련 이미지와 위의 한 쌍의 부츠에 초점을 맞춰

그것이 텍스트에서 만들어내는 파열음적인 효과를 분석한바 있다.[4] 반 고호(V. Gogh)가 그린 일련의 부츠 그림을 둘러싸고 벌어진 마틴 하이데거(M. Heidegger)와 마이어 샤피로(M. Schapiro) 간의 논쟁 그리고 뒤이은 데리다의 논증적 개입을 참조함으로써, 본인은 대단원으로 향하는 서사의 총체적 흐름에 어떻게 위의 부츠 이미지가 불협화음적인 제동을 거는지 설명하려 했다. 즉, 위 인용문에 묘사된 한 쌍의 신발은 작품 전반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발 관련 이미지의 총체이자 하나의 현존하는 대상물로서 텍스트의 종반부가 자아내는 숭엄하고도 승화적인 분위기를, 그리고 이와 함께 "서쪽으로의 여행"과 관련된 가브리엘의 상념이 지니는 본질적 추상성을 효과적으로 분열, 차단시키는 안티테제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지난 논문에서 강조한 요소가 부츠라는 기표의 반동화적인, 다시 말해 서사의 단성화적 흐름에 거스르는 일종의 텍스트적 잔여물로서의 기능이라면, 여기서는 그 역할을 대학선생이라는 가브리엘의 극중 위상과 결부시켜 봄으로써 글의 결론을 대신해보고자 한다.

뭇 남자들의 얄팍한 선심은 꿰뚫어보고도 남을 만큼 성숙해져 버린 하녀 릴리, 오랜 지인이자 직장동료이면서도 결코 녹록하지만은 않은 상대 미스 아이버스, 그리고 호텔에서 남편의 성애적 접근을 단호히 거부해버리는 그레타—비록 작품 전반을 훑어볼 수는 없었지만, 우리는 이 3명의 등장인물이 각기 주인공과의 대면에서 어떻게 단계적으로 그의 학자연한 자만심과 자신감에 균열을 가져오는지 잘 알고 있다. 결말부에서 주인공의 자아적 정체성에 돌이킬 수 없는 상해를 입히는 그레타의 죽은 옛 애인 마이크 퓨리의 등장 역시 단지 독자적인 타자의 돌발적 출현으로서가 아니라 세 여인이 행한 선행공격의 연결선상에서 조명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텍스트의 플롯과 그에 맞물린 일련의 연쇄적 사건이 주인공의 정체성 해체라는 확고한 목표를 향해 치닫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껏 우리가 제기한 문제 중 하나는 의외로 쉽게 풀리는 것처럼 보인다. 제이므슨이 『하워즈 엔드』를 예로 들며 비판한 바와는 달리, 「죽은 자들」은 적어도 그 결말부에서는 개인의 내면이라는 공간으로의 환원이 애초부터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다. 정체성의 해체라는 놀랍

4) 본인의 박사논문 제 3장 "Image, Gesture, Movement" 참조. Suk Kim, "Joyce and the Post-Love Affair: Literature, Globalization and the Question of the Universa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168-233.

고도 극적인 사건의 암시(혹은 발현)에도 불구, 작품의 대단원은 데리다가 정확히 헤겔주의적이라 일컬은 '양수겸장'의 작업을 가히 불가항력적으로 떠올리게 하니까 말이다.

이 문제를 해명하는 한 방법은—제이므슨이 또 다른 글 「역사 속의 『율리시스』」("*Ulysses* in History")에서 주장하였듯—『율리시스』와 같은 저자의 후기작이 감행하게 될 "급격한 탈개인화"(radical depersonalization) 작업이 초기작에선 미완의 상태로, 혹은 그 착수단계에서 머문다 보는 것이다(183). 이러한 시각과 맥을 같이 하는, 하지만 접근방향에 있어서는 상반되는 또 하나의 해명은, 텍스트를 대하는 독자 우리 자신이, 지난 수십 년 간에 걸쳐 탈구조주의 이론의 전파가 미친 지대한 영향력에도 불구 아직도 자아중심적 주체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자백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두 시각과 더불어 또 하나의 해석이 가능하니 그것은 위에서 언급한 부츠의 역할에 이 문제를 비추어 보는 것이다.

그레타가 잠들기 전 호텔침대 맡에 벗어놓은 한 쌍의 부츠가 텍스트에 앞서 등장한 신발/발에 관련된 여러 주제들을 하나의 끈으로 묶어 상기시키고 첨예화시켜 준다면, 그래서 종결부 "서쪽으로의 여행"에 대한 가브리엘의 언급이 지닌 추상성에 대한 암묵적 경고이자 보완적 무게추로 작용한다면, 이는 그 부츠가 단지 하나의 재현물로서 담보하는 물체성(physicality)에 기반 하지는 않는다. 작품 종결부에서 반복해 강조되는 "그림자", "회색빛 무형의 세계"(*D* 224)에 대한 언급이 암시해주듯, 그 부츠는 하나의 현존하는, 그래서 가브리엘/화자로 하여금 지각반응을 일으키는 독자적 개체인 동시에, 하나의 "붙잡을 수 없는"(impalpable)(*D* 224) 잔영으로 남아 존재와 부재 간의 유공성(porosity)을 환기시키는 유령성(spectrality), 혹은 혼재성(haunting)의 상징이자 매개체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텍스트가 구현해내는 지식인으로서의 주인공, 혹는 주인공으로서의 지식인 가브리엘 콘로이의 마지막 모습 역시 이런 시야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즉, "저 다른 세상으로 과감히 떠나야 하리라"(*D* 224)라는 주어 없는 문장이 환기시키듯, 그것은 이미 해체의 도상에 접어든 주체적 잔영의 탄원이자 그 메아리로서, 또 이와 동시에 픽션과 작가적 상황이라는 이분법적 경계를 넘어선 일종의 수행적 언명으로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

데리다는 그의 1999년 에세이 「조건 없는 대학」("The University Without Condition")에서, 교수(professor)라는 용어의 라틴어적 어원이 지니는 본원적, 역

사적 의미에 주목한바 있다. 그에 의하면, 1300년 이전까지 종교적 색채가 뚜렷했던 "profess" 라는 단어는 당시 프랑스어에서 그랬듯 영어에서도 종교적 소명(calling) 혹은 직업(vocation)과 관련하여 자신의 입지를 숨김없이, 공공연히 선언함을 뜻했다(214-15). 이렇게 본질적으로 자체 수행성(performativity)을 내포할 수밖에 없었던 '교수'의 의미는, 그 후 조합운동이라는 유럽사회에 불어 닥친 거대한 세속의 파고에 휩쓸려 점차 묻혀버리고, 계몽주의시기에 들어서면 그 음영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희미해져 버리고 만다. 계몽주의는 학문적 연구의 자유와 독립성을 주창하고 제도화하였다는 점에서 20세기 세계 전역에 걸쳐 하나의 교육체계적 이상이자 규범으로 자리 잡은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지만, 그러한 학문적 자유와 독립성을 위해 치뤄야 했던 값 또한 명백하다. 상급학부의 세속적 권력에 대한 칸트의 질타가 증언해주듯, 그가 끝까지 필사코 지켜내려 한 교양학부의 자유권은 대학교수의 무한대한 책임을 상아탑이라는 울타리 안에 가둬버리는 역기능적인 결과를 (보다 정확히 그러한 사태를 미연에 정당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죽은 자들」은 단 한 번도 대학 내 교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하지만 학자적 소명의 아우라는 대학이라는 울타리 밖에서도 계속해 주인공을 따라다니고, 그의 의식은 물론 그의 존재성을 주변으로부터 끊임없이 차별화시키며 재부각 시켜준다. 특히나 그가 미스 아이버스라는 또 한 명의 선생과 한 쌍의 댄스 파트너를 이루며 빚어내는 학자적, 지적 분위기는 비록 그 둘이 주체적 개인으로서 지니는 여타 차이점에도 불구, 근 700년에 달하는 서구대학의 긴 그림자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하나됨을 향해 나아감'이라는 (물론 그 하나됨은 모든 논쟁과 논란의 근원이자 지향점이기도 하겠지만) 우주의 어원적, 근원적 의미(uni + versus)를 다시 한 번 일깨워준다. "열정의 정점에서 저 다른 세상으로 건너가야 하리라"라는 문장은 궁극적으로는 이 같은 일깨움에 비춰보아야 할 언명이 아닐까? '수난'이라는 열정(passion)의 또 다른 종교적 의미가 암시해주듯, 교수의 중세적, 본원적 의미를 주인공의 해체된 잔영 너머 상기시키는?

해체되는 가브리엘의 잔영 속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교수의 그것이라면 그 잔해 너머 다른 한 축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우주'이다. '우주'는, 텍스트의 마지막 문장을 마무리 짓는 명사구 "산 자와 죽은 자들"을 앞서 하나의 포괄적 틀 안에 묶어준다는 점에서 텍스트가 남기는 포괄적 비전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이를, 앞서 지적한바 대로 헤겔적 (혹은 맑스적) 시각에 입각해

'형식적 포섭'(formal subsumption)의 문헌적 발현이라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작품 내 앞서 반복된 페이터에 대한 인유의 연장선상에서 놓고 보아, 노발리스에 대한 일종의 우회적 헌사로 해석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야콥 뵈메(J. Böhme)와 같은 신비주의자의 영적 우주관을 비판적으로 계승,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노발리스는 헤겔 같은 동시대 독일지식인들과 지적 유산을 같이하지만, 아일랜드 요절시인 맹건처럼 이른 나이에 세상을 등진 "푸른 꽃"(Blue Flower)의 시인은 자신의 보편사적 철학관을 체계적으로 확립해 통합시킬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점에서 절대적 정신의 발현을 이론화한 헤겔과는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철학에서 수학은 물론, 심리학, 자연과학, 예술, 종교학 등을 아우르는 학문 전반의 궁극적 통합을 꿈꾸며 노발리스가 생애 말년에 야심차게 몰두한 『백과사전』(*Encyclopedia*)조차도 그 파편적이고 함축적인 구성형식에 있어서는, 우주에 관한 그의 짧은 금언(조이스가 맹건 에세이에서 인용하는 아포리즘 "Love is the design of universal history—the Amen of the Universe")이 등장하는 『꽃가루』(*Pollen*)와 별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Novalis 58). 하지만 그의 사유체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그의 아포리즘이 독자에게 요구하는 사유 그 자체의 도약일지도 모른다. "저 다른 세상으로"(into that other world)의 출발을 재촉하는 「죽은 자들」의 수행적 언명이 그렇듯, 노발리스의 우주에 대한 선언은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시대적 비전에 입각한 보편성과 학자됨의 의미를 찾아나가길 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학자 라시델은 대학의 의미를 둘러싼 당대의 지배적 선입견을 논하며, UCD의 창립자이자 『대학의 이념』(*The Idea of a University*)의 저자이기도 한 존 헨리 뉴먼마저도 대학을 '모든 학문'(universitas facultatum)의 보고이자 축어로 혼동하였다고 개탄한바 있다(Rashdall 642-43). 전자의 지적은 그 자체로서는 십분 타당한 것이지만, 오랜 세월 대학이 서구의 최고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누려온 실제적 위상을 가늠하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에드먼드 버크(E. Burke)나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H. G. Gadamer)와 같은 학자들이 지적하였듯, '선입견'(prejudgment)이라는 허상 아닌 허상은 대학의 위상이 수세기에 걸쳐 이상화, 보편화되는 과정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왔고, 적어도 대학이라는 기관이, 권력이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해 그 모습을 바꿔 우리 주변을 맴돌고 배회할 것이기 때문이다.

V.

앞서 본 논문은 7세기에 걸친 아일랜드의 오랜 식민지화 과정과 이에 보폭을 맞춰 쇠퇴의 길을 걸어온 아일랜드의 고등교육이 20세기 초에 다다라서는 얼마나 무겁고도 버거운 짐으로 전락했는지를 지적한바 있다. 조이스는 아일랜드의 이러한 퇴행적이고 물화된 교육환경이 만들어낸 예외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특히나 대학 졸업 후 그가 파리에서 작성한 미학관련 노트와 그 노트에 정리된 여러 개념들이 차용된 『젊은 예술가의 초상』은 식민지 출신의 한 젊은이가 어떻게 이러한 중세적 교육환경에서 살아남았고, 또 거기에서 창작의 원동력과 자신감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를 증언해주고 있다. 하지만 조이스의 두 번째 작품은 단지 입신양명한 한 예술가의 그럴 듯한 성장기록만은 아니다. 텍스트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더 발달된 유럽의 여타 교육환경은 물론 세계 도처 어디에서도 확인될 수 있는 실패한, 또는 교계제라는 권력적 서열화의 나락으로 언제 곤두박질칠지 모를 서구대학체제의 어두운 단면을 일깨워주고 있다. 조이스와 같은 예외적 케이스가 부재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1857년 UCD의 초대 학장 뉴먼을 영국으로 내몰았던 이상과 현실 사이의 대학교육의 괴리는 언제 어디에서고 발견될 터이니 말이다.

하지만 백 년 하고도 사반세기 전 라시델이 환기시킨 '대학'을 둘러싼 일련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오늘날 우리가 대학과 관련 직면하는 유일한 신기루는 아니며, 또 가장 위협적인 유령도 아니다. 언론지상을 수놓는 그 많은 논의의 의도나 배경이야 어떻든 간에, 적어도 문학을 공부하고 꿈꾸는 모든 이에게 인문학의 위기라는 화두는 뿌리치기 힘든 시대적 유령일 것이기 때문이다. 인문학의 위기는 물론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며, 17세기 뉴턴(I. Newton)의 세례를 거쳐 산업혁명을 통해 급격히 팽창해온 서구과학기술 전반의 발전과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복잡 미묘한 문제이다. 하지만 지난 2세기에 걸쳐 맹위를 떨쳐온 과학의 분업화, 전문화 연구도 오늘날에는 또 다른 형상의 유령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할 필요가 있다. 임마뉴엘 월러스틴(I. Wallerstein)이 『유럽식 보편주의: 권력의 수사』(*European Universalism: The Rhetoric of Power*)에서 지적하였듯, 복잡성 연구나 보편성 이론과 같은 과학계 내 움직임은 분과체계 하에 독자적으로 발전해온 과학 분야의 경계를 그 안으로부터 허물고 침식시키며 또 동시에 재편하는 일종의 유령 아닌 유령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연구라는

인문계 내의 쌍둥이가 국가별, 혹은 문화별 선긋기로 분할된 기존 인문학의 경계를 문제화시키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Wallerstein 67-69). 하지만 이러한 위협의 측면에서도 인문학의 상황은 과학의 그것과는 또 다른 상이점을 보이니 이는 지역학이라는 또 하나의 독립적 흐름이 기존의 서구·유럽중심적 인문학관에 몰고 올 지세학적 변화와 관련해서다. 비록 서구화는 되었다 하나 궁극적으로 서구에 속할 수 없는 세계의 많은 여타 지역에서 문학을 연구하는 인문학도들이 언제까지 「죽은 자들」의 가브리엘처럼 허울 좋은 "프랑스, 독일, 벨기에로의 자전거 여행"을 꿈꿀 수는 없을 터이니까 말이다. 데리다는 대학문제와 칸트를 연관 지어 다룬 또 하나의 글 「모클로스, 혹은 학부간의 논쟁」("Mochlos, or the Conflict of the Faculties")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바 있다.

> 칸트가 말해주었을 것이듯, 대학은 두 발로 걸어가야만 한다. 왼발, 오른발. 한 발이 땅을 박차고 도약할 때에 다른 한 발이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두 발, 보다 정확히 **신발을 신은** 두 발로 걷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단지 자연과만 결부된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라는 제도와 결부된 것이기 때문이다. (*Eyes of the University* 111, 필자강조)

이미 익숙해져 버린 서양식 구두를 쉽사리 벗어 내던질 수 없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배우고 숨 쉬는 서구지식을 성급히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제도화되어 일방적으로 이식된 기존의 서구학문체계가 어떤 식으로든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미래에 맞게 변형되어야 한다는 시각에 있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죽은 자들」을 탈고한 후 조이스는 다시 한 번 반(semi)자서전적 소설의 교정 작업에 몰두하였다. 반복해 강조하는 바이지만 『젊은 예술가의 초상』이라 제목 지어질 이 작품의 앞부분에서 조이스는 "우주"라는 단어를 자신의 다른 어느 작품에서보다 빈번히, 반복해 등장시키고 있다. 보편성이라는 이름의 작가적 승부수(혹은 신기루)를 선언한 『더블린 사람들』의 마지막 단편이 그랬듯, 다시 한 번 자신의 분신(分身)을 통해 자신의 신분(身分)적 선택을 재확인, 재정당화 하겠다는 듯. 어쩌면 이는 우리가 절뚝거리면서라도 뒤밟아가야 할 발걸음이 아닐까? 현실의 한 발은 트리에스테에 딛고, 상상력의 다른 한 발을 더블린에 내딛었던 저자가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 속으로의 "서쪽으로의 여행"을 감행해야 하지 않을까? 기존의 분과체제에 저당 잡힌 인문학이 허울뿐인 또 하나의 미명의 알리바이로 전락키 전에?

(연세대)

인용문헌

Barnstorff, Hermann. “The Rise of the German Universities.” *The Modern Language Journal*. 23.4 (1939): 282-90.

Derrida, Jacques. “Mochlos, or the Conflict of the Faculties.” Trans. Richard Rand and Amy Wygant. *Eyes of the University: Right to Philosophy 2*.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202-37.

_____. “Ulysses Gramophone.” Trans. Tina Kendall. *Acts of Literature*. New York: Routledge, 1992. 253-309.

_____. “The University without Condition.” Trans. Peggy Kamuf. *Without Alibi*.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2. 83-112.

_____. *Writing and Difference*. Trans. Alan Bas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Donovan, Robert. “University College, Dublin.” *The Catholic Encyclopedia,* Vol. XV. 1912. <http://www.newadvent.org/cathen/15200a.htm>.

Ellmann, Richard. *James Joyc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Jameson, Fredric. “Modernism and Imperialism.” *Colonialism, Nationalism and Literatur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0. 43-66.

_____. *A Singular Modernity: An Essay on the Ontology of the Present*. London: Verso, 2002.

_____. “*Ulysses* in History.” *Modern Critical Views: James Joyce*. New York: Chelsea House, 1986. 173-88.

Joyce, James. *Dubliners*. New York: Penguin, 1992.

_____. *The Critical Writings of James Joyce*. Ed. Ellsworth Mason and Richard Ellmann.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89.

_____.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New York: Penguin Books, 1993.

Kant, Immanuel. *The Conflict of the Faculties*. Trans. Mary J. Gregor. New York: Abaris, 1979.

Kim, Suk. "Joyce and the Post-Love Affair: Literature, Globalization and the Question of the Universal." Diss. New York University, 2006.

McCourt, John. *The Years of Bloom: James Joyce in Trieste, 1904-1920*.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2000.

Meisel, Perry. *The Myth of the Modern: A Study in British Literature and Criticism after 1850*.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7.

Novalis. *Pollen and Fragments: Selected Poetry and Prose of Novalis*. Trans. Arthur Versluis. Grand Rapids: Phanes, 1989.

"The Origin of Mediaeval Universities." *Science* 6.146 (1885): 460-1.

Pater, Walter. *The Renaissance: Studies in Art and Poet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Rashdall, H. "The Origins of the University of Paris." *English Historical Review*. 1886, I. 639-76.

Readings, Bill. "The University without Culture?" *New Literary History* 26.3 (1995): 465-92.

Scott, John C. "The Mission of the University: Medieval to Postmodern Transformation."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77.l (2006): 1-39.

Wallerstein, Immanuel. *European Universalism: The Rhetoric of Power*. New York: The New Press, 2006.

Abstract

The University Question Raised by "The Dead"

Suk Kim

The present inquiry examines the University Question raised by James Joyce's "The Dead." Although the flitting reference in the text (the phrase "the University Question" appears only once, that too with its underlying context specifically alluding to the then ongoing Irish debate over university education) may seem to suggest that this is a topic tangential at best, one, moreover, hopelessly enmeshed in the circumscribed historical context of the prior turn of the century, this essay argues that the University Question in fact provides a central pole for critically revaluating the final story of *Dubliners*, in particular its ending. For one thing, so far as the central character Gabriel Conroy's pedantic and patronizing attitude throughout that fateful evening is inextricably linked to his privileged status as a university teacher in what is, after all, an underdeveloped part of the world, his ruminations over his own precarious identity later that night cannot but throw a radically shifted light on the problematic figure of intellectual, in which case his following invocation of "passion" ("Better pass boldly into that other world, in the full glory of some passion," 224) may constitute, however obliquely, a critique of higher education centered on Reason. Yet, if that critique necessarily remains as abstract as the hero's attendant appeal to "journey westward," there exists another, more crucial level in which the University Question, this time precisely due to its irreducible specificity, calls for our attention. That is, assuming it is the very ill-grounded nature of Gabriel's brand of cosmopolitanism which his ultimate self-questioning is designed to undermine—and cosmopolitanism, according to Kant, is nothing if not yet another vision of universalism, a regenerative hope for humanity's co-belonging based on the universal outline of natural law—what could

the strangely obtrusive word ‘universe’ possibly signify in the concluding paragraph? What kind of bearings, if any, could the university question have for that grand vision with which *Dubliners* concludes? Even with Joycean penchant for wordplay in mind, conjoining and correlating such two apparently incommensurable words as universe and university may seem like a pointless exercise in semantic homology. Once we trace, however, some of the thematic elements in the text (especially the shoe/foot related motif) that simultaneously foreground and problematize that visualization of an affect on the one hand (“snow … falling through the universe” 255)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an ideal on the other (university qua community of scholars), “The Dead” may offer us a chance to not only reassess the pivotal position the story occupies in Joyce’s oeuvre but reevaluate the very condition of literary academia in which we approach his works in this late age of globalization.

■ Key words : university, universality, spectrality, Joyce, Derrida, Jameson
(대학, 보편성, 유령성, 조이스, 데리다, 제이므슨)

필자 소개

김철수
영국 University of Warwick 영문과 석사, 조선대학교 영문과에서 박사학위 취득. 학위 논문은 "James Joyce의 소설에 나타난 화해의 추구: *Dubliners,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과 *Ulysses*를 중심으로." 현재 전주대학교 교양학부에 재직중. charles@jj.ac.kr

윤희환
서울대학교 영문과에서 박사학위 취득. 학위 논문은 "Radiant Triviality: Epiphany in Joyce." 저서로는 『간이역에서』(대학사, 2003), *Like a Fish, Like a Lizard* (대학사, 2003)가 있음. 현재 강남대학교 교양학부에 재직중. justiny@kangnam.ac.kr

김 석
미국 New York University 영문과에서 박사학위 취득. 학위 논문은 "Joyce and the Post-Love Affair: Literature, Globalization and the Question of the Universal." 현재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출강중. askpeer@yonsei.ac.kr

민태운
미국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at Carbondale 영문과에서 박사학위 취득. 학위논문은 "Subjectivity, Language, and Society in Joyce's *Dubliners,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and *Ulysses*." 저서로는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전남대학교 출판부, 2001), 『조이스의 더블린: "더블린 사람들" 읽기』(태학사, 2005) 등이 있음. 현재 전남대학교 영문과에 재직중. taeun@chonnam.ac.kr

김상욱
미국 Northern Illinois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 취득. 학위논문은 "The Parent-Offspring Conflict in Joyce's Fiction." 현재 경희대학교와 덕성여대에 출강중. kimswook@hotmail.com